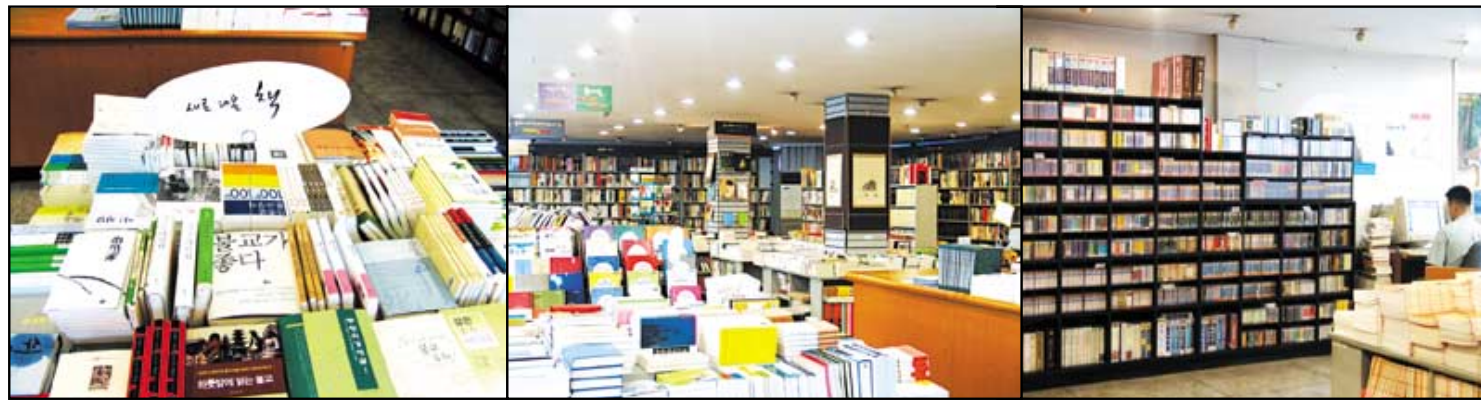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에게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 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책으로 장엄된 풍경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산처리 되어 편리하지요.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별로 구분돼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희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불교TV 큰스님과의 대담 프로그램 ‘뜰앞의 잣나무’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 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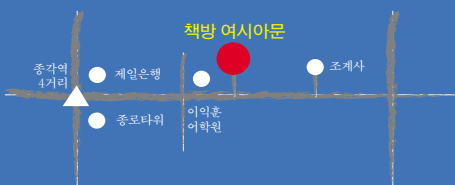
- 황남채씨 (판화가)

불교 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손 라신 **여시아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삼합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 지도



### ‘진리의 말씀-법구경’ 법정 스님 옮김/나무심는 사람

### 짧지만 긴 가르침 불자들 애송 잠언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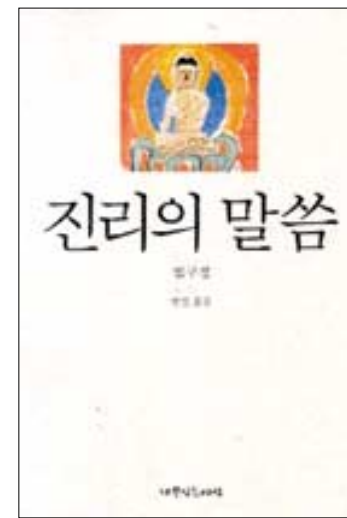
현해 스님(동국대 이사장)

<법구경>은 경전이라고 보다는 전세계 불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 읽는 불교 잠언 시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기 보다는 삶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때마다 펼쳐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기에 안성마춤입니다. 국내에는 <법구경>을 번역해 놓은 책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법정 스님이 옮긴 <진리의 말씀-법구경>을 권합니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법구경>의 특성을 잘 살려놓아 읽기에 편합니다.

번역하는 지혜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법구경>으로 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십시오.



###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산뜻한 삶의 지혜 던져줘



“가르침에 전해지는 지는 잡지리가 평안해진다. 마음은 즐겁고 맑아진다. 부처가 말씀하는 가르침 속에 지혜의 눈은 저절로 열려진다.”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각자가 마음을 아껴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각자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면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이 좋은 명구들은 모두 <법구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법구경>은 인도의 법구(法句) 스님이 인생에 지침이 될 만큼 좋은 시구(詩句)들을 모아 엮은 경전이다. 후대의 대중경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명쾌한 구성과 해학이 섞인 법문(法門)으로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내용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경전의 성립사적(成立史的)인 측면에서 보면 <출요경(出曜經)> <법집요송경(法集要頌經)> 등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많은 비유와 암시를 통하여 불법을 흥포(弘布)하는 일종의 비유문학적인 경전이다.

팔리어(語) 원문인 <Dhammapad>가 현존하고 있으며, 동본이기(同本異記)로는 법기(法契)·법립(法立) 공역의 4권이

로 된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이 있다. 비록 말은 짧고 표현도 소박하지만 구구절절이 경구(警句)로 된 감로(甘露)의 법서(法書)로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구경>의 요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출가수행자나 재가 신도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일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법구경>의 말씀들은, 왜 <법구경>이 가장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이다.

<법구경> 만큼 예로부터 불교도들에게 애송된 경전도 드물고, 또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경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이 책 만큼은 별다른 저항감 없이 접한다는 사실은, 바로 <법구경>만이 가진 깊은 지혜의 보편성 때문이다.

###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켄지 지음, 세등 스님 옮김/김영사

### 여성불교 운동의 대모 텐진빠모 스님 이야기

명성 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운문승가대학장)



여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여성을 위해 성불의 길을 밝힌 부처님의 진리에 주목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이 책의 주인공 텐진 빠모 스님은 현재 티베트에서 여성불교교리를 운영하면서 인도 북부에서 비구니 교육을 위한 사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구보리 화화종생의 실천가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이 외국서적이기에 번역의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등 스님의 번역이 이 책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서구여성 첫 티베트 수도원 수행 완전한 깨달음 이루겠다 서원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제목에 이미 여성과 성불(붓다)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남성, 여성이라는 차별이 가담키나 하겠는가. 책의 주인공 텐진 빠모 스님은 1943년 런던에서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가난하지만 종교성이 풍부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빠모 스님은 고독한 삶과

동양, 완전성을 동경하며 성장했다. 십대 때 불교를 접하고, 스무 살 때는 내면의 소리를 찾아 인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영적 스승 캄트를 린포체를 만났고 그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가 되었다. 서구 여성으로서의 최초로 수백 년 동안 여성에게 금지된 영역으로 알려졌던 티베트의 수도원 제도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빠모 스님은 보다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오르고 싶어하는 열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다른 남자 수도승들과 수행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조차 함께 할 수 없었을 정도의 극심한 차별을 경험했다.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 풍조는 이제 갓 불교에 입문한 빠모 스님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빠모 스

님은 아무리 많은 생애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여성의 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마침내 인도 최북단에 있는 타을 고포파로 떠났다. 타을 고포파는 선택된 장소라는 뜻의 티베트어가 말해주는 듯 도저히 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인 눈과 얼음 장벽, 일 년 중 8개월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거기서 빠모 스님은 동글 수행 12

년을 포함한 총 18년간의 은거 수행을 해낸 것이다. 빠모 스님은 진정한 깨달음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은 빠모 스님의 믿음은 이제 다른 여성 출가자 및 불자들이 나아가 종교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서양 여성의 치열하고 경이로운 수행정경을 담은 이 책은 과거 한국, 인도, 중국 선사들의 선 수행담에 손색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다. 화석화된 옛날 얘기가 아닌 동시대인의 기록인 데다 참선, 요가 등 동양적 수행문화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서양, 그것도 여성의 구도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끈다.